

**2024 년 6 월 2 일 “(아바드의 사람들 12) 성령을 받다”(요 14:15-17, 26)**

신약에서 만나는 아바드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 아바드의 사람들(구약에서)**

진정한 '아바드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과 삶의 성서적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삶의 자리를 가꾸고 지키는 소명을 받습니다(창 2:15). 이 소명을 성취하는 길의 시작은 삶의 참 주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나타난 아바드의 사람들에게 내적 자질이 요구됩니다. 예:

1.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
2. 야곱 -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
3. 요셉 -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 용서를 배움
4. 모세 -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유한 중보자로
5. 다윗 - 찢겨진 심령 속에서 자비를 발견함
6. 룻 -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붙들
7. 예레미야 -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것
8. 호세아 - 수치의 바닥에서도 주님 사랑을 행함
9. 욥 -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발견

**[2] 신약의 백성들 - 성령 받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어떤 시대이든 아바드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동일한 목적 아래 있지만,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차이를 갖습니다.

(1) 구약백성은 율법준수의 판단 아래 정죄/형벌을 받는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신약백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했는가의 여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감복하지 못했어도 정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기다림의 대상이 됩니다.

(2) 성령께서 참 아바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십니다(16 절).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인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은 진리(예수님)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배우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알아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3] 성령 하나님

(1)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거하심, 동행하심) - v.16b & v.17b 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부성자 하나님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독립적인 세분 하나님이 하나됨(화목)을 이루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됨 속에서 모든 성부의 뜻은 성자께서 행하시고, 성자의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토록 세분은 창조의 목적을 위해 구원하고 완성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하나되어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창 1:2, 시 139:7, 사 11:2), 또는 그리스도의 영(롬 8:9, 빌 1:19)이라고 불리시기도 합니다.

(3)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역(v.26) -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안내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핀포인트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사모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연장선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집사들/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겠습니다. 성령체험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성령 하나님을 정리해봅시다. 본문의 말씀에 비출 때 어떤 차이를 발견했습니까?
2. 나(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